



## 甲寅年을 맞이 하면서

希望과 信念에 찬 甲寅新年을 맞이하여 會員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心祝하나이다.

本 齒科醫師協會誌가 月刊으로 發刊을 始作한지도 於焉 4個星霜이 흘렀으며 豫想했던 대로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러나 齒科醫師協會의 重大한 事業의 하나인 會誌「月刊」發行이라는 比重으로 볼때, 多少難關에 부딪친다 해도 이를 中斷하거나 疎忽히 할수는 없었습니다.

齒科醫學界에 있어서 學術練磨의 表象이기도 한 本 會誌는 그間 여러會員의 不斷한 協助와 齒科界에 從事하는 여러분의 깊은 配慮와 協贊으로 이룩된 거룩한 所産임을 確信합니다.

지난 第25回 綜合學術大會에서 엿볼수 있듯이 恒時 診療에 臨하시는 一線 臨床家 諸賢들이 새로운 診療傾向과 Technic等 臨床分野에 至大한 關心을 表明해 주시는 點으로 미루어 볼때 學術雜誌로서의 內的인 忠實을 期해야겠다는 使命感을 痛切히 느꼈으며 會員 여러분의 끊임없으신 指導鞭撻이 끊이지 않는 限 高貴한 知識의 寶庫로서, 새로운 醫術의 普及과 導入에 媒介體로서의 先驅者의 役割을 完遂할 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지난 癸丑年을 期해 齒科醫學界는 學術的인 面에서 一大 轉換點을 이루어 놓았다는 點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會誌의 健全育成이라는 命題를 놓고 全 會員 여러분과 齒科醫療業界에 關與하시는 여러분께 倍前에 聲援을 바라맞지 않으며 아울러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甲寅年 元旦

大韓齒科醫師協會  
學術委員會

委員長 金 東 順